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

( )

의안 번호	36
----------	----

발의년월일: 2014. 7. 22.

발 의 자: 이한구·장현근·황홍구·공병건·  
이용범·유일용·박영애 의원  
(찬성자 6인)

## 1. 주 문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함.
  -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국비 30% 전액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
  - 정부는 대회 성공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부터 선수수범 참여하고,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도해 줄 것.
  - 정부는 대회 성공과 한반도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단 구성을 조속히 승인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

## 2. 제안이유

- 우리 인천은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최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만 3천여 공직자와 5대·6대·7대 의회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차질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왔음.
- 정부와 국회도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지난 연말 경기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3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회지원법에 따라, 수년간 논란을 빚었던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30% 국비지원 예산을 최종 통과시키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국비 30%를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마저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감액하려하고 있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소중한 자산까지 매각하며 희생을 다하는 인천시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음.
- 이에, 모든 신설 경기장의 3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크리켓 경기장을 주경기장 연접부지에 건축한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감액해서는 안 될 것임.
- 다음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란 주제로 소통과 화합, 평화의 아시아 실현을 위한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인천의 도약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축제이기도 함.
- 2013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 국민이 함께 경기를 응원하고 선수단을 격려할 수 있도록 남은기간 홍보와 관람 유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 다행히, 지난 7월 11일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준비현황 종합보고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대회의 안전과 성공을 통한 인천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신만큼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기관 등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함.

- 끝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임.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남북이 긴장과 대결관계 속에서 악화되고 있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길로 전환할 것인지가 중대한 관심사임.
  -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한 서해에서의 충돌은 인천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도약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여러 여건상 남북 단일팀 구성은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남북 공동 입장과 남북 공동 응원단 구성만큼은 꼭 성사되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남북을 비롯한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승인과 지원을 촉구함.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함.
3. 이송처 : 청와대, 국회(소관상임위원회), 통일부, 기획재정부, 문화관광체육부,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 첨부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

# 2014아시아경기대회 정부 협조 촉구 건의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목전입니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한을 비롯한 45개 아시아국가에서 36개 종목 23,0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단, 심판진이 참가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42개국 6,0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단이 참가합니다.

우리 인천은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최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만 3천여 공직자와 5대·6대·7대 의회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차질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지난 연말 경기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3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회지원법에 따라, 수년간 논란을 빚었던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30% 국비지원 예산을 최종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민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소중한 자산까지 매각하는 등 인적·물적 희생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국비 일부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마저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감액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신설 경기장의 3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경기장 연접부지에 건축한다고 국비지원을 감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란 주제로 소통과 화합, 평화의 아시아 실현을 위한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입니다. 대회 성공적 개최를 통한 인천의 도약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축제가기도 합니다.

우선 대회를 유치하는데 책임있는 위치에 있고 2014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이 절실할 때입니다. 2013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 국민이 함께 경기를 응원하고 선수단을 격려할 수 있도록 남은기간 홍보와 관람 유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조직위원회에 대한 권한은 행사하고 대회 성공여부에 대한 책임은 인천시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7월 11일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2014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준비현황 종합보고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대회의 안전과 성공을 통한 인천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신만큼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기관 등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입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남북이 긴장과 대결 속에서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길로 전환할 것인지가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한 서해에서의 충돌은 인천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여건상 남북 단일팀 구성은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남북 공동 입장과 남북 공동 응원단 구성만큼은 꼭 성사되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남북을 비롯한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승인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과열 경쟁과 종교 및 이념 대립에 의한 갈등으로 곳곳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

아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일본도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며, 군사대국 지향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2010년 중국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가 돈을 앞세운 세계 최대의 웅장하고 화려한 대회였다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대회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소통과 화합, 평화의 아시아 실현의 일대 전기로 삼아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의 숭고한 가치를 세계만방에 과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1.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국비 30% 전액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
- 1. 정부는 대회 성공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부터 선수수범 참여하고,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
- 1. 정부는 대회 성공과 한반도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단 구성을 조속히 승인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4. 7.

**인천광역시의회**